

❖ 『사냥꾼의 수기』 - 펜은 총보다 강하다, 러시아의 재발견

> 1850년대와 『사냥꾼의 수기』라는 작품집의 의의

; 혼란스러워가는 19세기 중반 러시아 제정과 사회의 충실한 반영이자 선구(->리얼리즘)로 서의 러시아 문학의 위치가 본격화

- 1855~56년, 영불 연합군에게 맞서 흑해로의 진출을 꾀한 크림전쟁에서의 러시아 제정의 패배, 제정의 자존심에 큰 상처와 사회적 동요, 불안이 확산.

-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의 논쟁과 대립의 격화.

- 1830년대까지의 낭만주의, 40년대의 자연파적인 경향과 함께 문학의 지평을 넓힌 하나의 계기로 투르게네프의 『사냥꾼의 수기』가 역할을 맡음.

- 1847년 초, 잡지 『동시대인』에 첫 단편 <호리와 칼리느이치>가 발표, 호평을 받으면서부터 30살의 젊은 신진작가 투르게네프는 이후 20여편의 단편을 기고.

> 연작모음집 『사냥꾼의 수기』 - “러시아 들판”(русское поле)의 모자이크

; 러시아의 들판(자연)과 非도시민, 非귀족의 묘사, 발견. 사냥꾼? 그의 수기? ... !!! 단행본 첫 출간(1852) 이후 70년대까지 엮두에 두고 있었던, 투르게네프의 러시아적 향수의 한 축.

- 작품 읽기

<호리와 칼리느이치> - 칼루가 현의 소지주 폴루트키킨과의 만남, 교류. 그의 영지를 둘러 보듯이 호리와 칼리느이치라는 두 농민을 알게 됨. 개연성, 목적없는 이동의 타당성 확보. 초보관찰자답게 성실하게 두 유형의 러시아 농민을 관찰. 감정적 평가없이 최대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채 묘사.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모두 노출, 경향성 배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인의 농민을 묘사의 대상으로 삼는 정직함/노련함.

<베쥬진 초원> - 칠월, 여름 어느 날 숲에서 길을 잃은 사냥꾼의 야영, 함께 한 어린이들의 동심어린 대화. 길을 잃어버리고 전혀 낯선 곳에 처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사냥, 수확), “베쥬진 초원”(Бежин луг)의 묘사, 시골 아이들의 ‘등장’, 폐자, 파블루샤, 일류샤, 코스차, 바냐, ... ‘개별’이자 ‘전형’. 아이들의 동심어린 이야기거리와 이야기에 대한 경청과 기록, 이 자체가 당대 ‘예술적 글쓰기’ 행위의 한 사건. 반전의 정서.

<크라시바야 메취의 카시안> - ‘자연’(사냥물)을 따라 유랑하는 사냥꾼과 가장 추상적인 목적지(죽음)를 배웅하는 행렬의 조우, 그러한 이동과 행렬의 과도기, 이주, 정착하지 못함. 러시아 민중의 성인(성 바보Юродивый ; Holy Fool)의 모습, 민중의 지혜, 묘사의 관점과 아름다움(130쪽, 숲∞바다)

<늑대> - 개연성을 위한 의식적/자연적 인과, 비참한 농민들의 삶, 의무감 vs 자비심, 농민간의 이해 관계 상충.

<명창> - 비루하고 한벽(寒壁)한 시골 마을의 찌든 삶, “희락옥”이라는 시골 선술집, 농촌과 농민에 대한 일방적 미화만이 아닌, 절벽 끝에 선 마을의 그림, 노래 부르기 내기. 희망을 잃고 사는 농민들의 모습, 고귀한 문학지상(紙上)으로 등장. 도급장이의 노래, 기교, 터어키놈 야쉬카의 노래, 진심, 영혼, “갈매기”, 소리를 글로 나타내려 했다, ...

<밀회> - 그들도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귀족의 흉내는 외양만 그러한가? 귀족을 닮으려하는 하인과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또 한 하녀의 모습. 전경(前景)으로만 그치는 러시아 들판, 계절, 자연(겉이 많은 까마귀 한 마리)이 아니다! 9월 중순이란 가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면서 가장 짧게 사라지는 러시아의 계절, ... “황금빛 가을”(золотая осень)

<소리가 난다!> - 이야기!!! 자연의 위험, 아름다움. 러시아의 벌판이 캔버스의 풍경이고 서정성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닷! 강물 속에서, 벌판에서부터 쫓아와 다리 위에서 맞닥뜨린 낯선 무리, 아름답고 풍요롭고 낭만적이긴 하나 또한 운명이 시험되는, 신에 의한 삶의 공간이다, ...

<산림과 초원> - 1874년, 단행본으로도 『사냥꾼의 수기』가 간행(1852)된지 20여년이 넘어 추가로 쓰여진 단편 셋 중 마지막 종결성 단편. 사냥꾼으로서 러시아의 자연 속에서 만끽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유를 다시한번 정리. 자연, 자유, ... 사냥꾼의 자연, 자유 (vs 농민의 그것, 자연과 자유)

= 조명받지 못하던 농민의 자연 속에서의 삶을 가감없이 그려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냥꾼이라는 ‘관찰자’를 착안해 냈다는 점은 단편 연작이라는 전체 구성과 내적 개연성 획득에서 큰 플러스 요인이며,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하는 당위성을 지닌 인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멋진 아이디어이다. 그러한 사냥꾼의 눈을 통한 러시아 들판과 그 곳의 ‘인간들’에 대한 관찰은 익숙함과 낯설음을 항상 교차시킨다. 한편, ‘사냥’이라는 행위 자체, 사냥을 즐길 수 있는 신분과 위에서 아래로의 시혜적 묘사에 대해서는, 시대적 한계와 충실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